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1월 4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21장 37-22장 1절

설교제목 :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수많은 이단의 도전에 대하여 많은 변증들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변호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문적인 변증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하여 변증할 수 있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영내로 옮기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37절) 바울은 조금의 평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바울은 매우 정중하게 헬라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중한 헬라 말을 사용하는 바울을 모습에 천부장은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천부장은 바울을 죄질이 나쁜 범법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출신의 유명한 자객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주후 54년에 폭동을 일으켜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총독 벨릭스가 분견대를 감람산에 파견하여 그들을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애굽인이 자객 4천을 거느리고 광야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속인 이 애굽인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는 것을 보고, 바울을 그 애굽인일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며, 보잘 것 없는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의 대도시인 다소 출신임을 또박 또박 소개하였습니다.(39절) 다소는 당시 로마제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훌륭한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출신성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출신 성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당시 로마 연설문에 사용되는 어법을 사용하여, 천부장이 자신을 신임하여 자신의 청을 들어주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극한 상황에서도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당당하게 서서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을 손짓하여 조용히 시킨 이후(40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기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22:1). ‘**변명하는**’으로 번역된 ‘**아폴로게오마이**’는 ‘**변호하다**’, ‘**방어하다**’는 뜻입니다. 일차적으로 바울의 변명은 자신의 정당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변명은 자신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참됨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명은 한마디로 자기 방어이자, 복음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기독교를 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그러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하여 변증하고, 변명하고, 변호하여서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변증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뱀전 3:15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소망을 묻는 이들의 질문에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사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사랑의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22:1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부형들아**’로 부르고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이를 갈며 죽이려고 위협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하여 오히려 동질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말(아람어)로 연설했는데, 그 이유 역시 바울 자신도 아람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이요, 유대 율법과 관습을 존중한다는 동질성을 보여주기 위

함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롬9:1-3) 변증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증이란 논리적인 말싸움이 아닙니다. 변증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설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증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의 변증의 내용인데**, 바울의 변증의 내용은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증하는 신앙이란 곧 간증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하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란 주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나의 인생의 결정자요 주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결정자가 되었다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만일 내게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은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서,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은 없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복음을 변증하는 간증하는 신앙인의 자격을 갖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증하는 신앙이란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증하는 신앙이란**, 단지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극적인 주님과 만남을 이야기 하면서, 그 만남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변명은 그의 간증으로써,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변증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변증하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변증하는 신앙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변증하는 신앙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솔직하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